

식약처,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7곳 적발

- 알가공업체 239곳 전수 점검...7곳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 액란·구운란 등 총 233건 수거·검사...살모넬라 등 모두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용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온이 증가하는 시기에 달걀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 안전사고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달걀말이, 달걀 썰러드, 구운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체 239곳을 전수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알가공품 233건도 현장에서 수거하여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 여부 검사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모두 안전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알가공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제품별 보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구운란, 훈제란 제품의 경우 유통 중 미세한 금이 가면 그 틈으로 곰팡이가 쉽게 피어날 수 있어, 섭취 전에 달걀 껍데기 균열이나 곰팡이 발생 여부, 불쾌한 냄새 등을 주의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먹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위반업소 세부내역

담당 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영이 (043-719-3240)
		담당자	사무관	설찬구 (043-719-3253)
협조 부서	17개 시·도(시·군·구) 축산물 안전관리 담당부서			



연번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위반 내용
1	(주)승혜에프앤비	알가공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불당로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2	농업회사법인 태성농원 주식회사	알가공업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작업장 시설 위생적 관리기준 위반
3	동그라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알가공업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소사길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 미실시 ·위생교육 미수료자가 자체위생 교육 실시
4	삼흥에그흙	알가공업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로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5	성우식품	알가공업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만삼로	·내포장실 기준온도 미준수 ·시설 변경 미신고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6	에그온	알가공업	경기도 시흥시 매화2로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7	개미농장	알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부안면 사창길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